

봉사의 生活

창설자

이

기

혁
목사님



일한다는 것은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人間을 창조하시고 人間을 계속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人間의 역사 속에서 人間을 죄에서 구출하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계십니다.

한 시도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人間에게서 존엄성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人間도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人間이 일한다는 것은 개미나 벌들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단지 육체가 공간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두고 한 말은 아닌 줄로 압니다.

人間은 人格的인 주체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물리적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지금까지 진부하게 들어온 「봉사」라는 말입니다.

본능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은 人間에게만 주어진 것이며 그러기에 人間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떠날 수 없는 것처럼 人間이 이웃에게 봉사하지 않고서는 生存

할 수 없다는 것은 人間의 본질을 파헤친 것입니다.

불은 태우는 것이 본질인 것처럼 人間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사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現代의 人間사회는 급진적으로 변천해가지마는 이렇게 변하는 세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봉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떤 위대한 人間이 되어 칭송을 받게 된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 자체가 人間이 人間으로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人間의 본질은 사랑이며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봉사의 원칙 아래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人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상하게 하는 슬픈 현실은 결국 人間들이 人間의 본질을 역행하고 저버린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익 사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이익사회를 지배하는 원칙은 人間을 人格的인 주체로서 보는 눈이 아니라 경제적인 도구로서 人間을 판단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人間을 바라보는 눈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눈을 가지고 살 때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

사하고 헌신하는 人間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自然의 法則을 살펴 봅시다.

물이라는 것은 항상 흘러갈 때에 생명력이 있고 흘러가던 것이 고여서 정지할 때는 곧 썩어버리고 맙니다.

같은 헬몬山에서 흘러내리는 두 줄기의 물이 하나는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또 하나는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生命을 가진 고기들이 뛰놀지만, 그 고기들을 사해에다 집어 넣으면 5分 내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랑의 법칙도 자연의 법칙과 별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적인 것은 봉사를 통하여 드러나고 파괴적인 것은 사랑의 결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정신적으로 병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난 소년들이 깡패가 되기 쉽다는 것도 족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장애에 못지 않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데에서도 일어나는 정신적인 장애를 똑똑히 들여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人

間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병들 수 밖에 없다는 논리는 바로 사랑의 法則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삶의 법칙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역사의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역사가 지금까지 존속하게 된 것은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처칠과 같은 일부의 권력자들이나 오나시스나 록펠러같은 거부들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울지 모르나 그들이 역사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커녕 퇴보시킨 것입니다.

수많은 죄악과 부패로 곧 파멸을 당할 수 밖에 없는 분노에 찬 혼란한 역사이지마는 지금까지 이 정도나마 유지해 온 것은 사랑을 지닌 소수의 봉사자들의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에 대한 파괴 행위가 아니라 남이 모르는 봉사를 통해서 역사를 건설해 온 소수의 봉사자의 힘이 맥맥히 흐르고 있다는 역사의 法則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人間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人間의 存在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발로로써의 이웃에 대한 봉사는 자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자유에 의해서 봉사할 때 비로써 이웃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 살리는 길은 人間 본래의 모습을 찾아 사랑으로써 봉사하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 속에서 봉사의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봉사의 기회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좌절과 부조리와 부정과 부패로 쓰러져 가는 혼탁한 이 사회를 사랑의 봉사로써 정의와 자유와 평화가 깃든 명량한 사회로 건설합시다.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봉사자가 됩시다.

길거리에서 경찰에게 쫓겨 다니는 고구마 장사꾼, 오징어 장사꾼, 껌팔이, 구두닦이 소년, 냉마주이, 짱패같은 사회에서 소외 당한자, 억눌린 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동시에 권력을 능사로 하며 남을 억누르는 자에게도 횡포의 죄악에서 해방받도록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봉사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仁聖의 딸들이여!

여러분의 자발적인 봉사의 땀과